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영을



오늘은 8월 8일, 입추(立秋). 24절기 가운데 대서(大暑)와 처서(處暑) 사이에 드는 절기로 순서로는 열세 번째에 있다. 동양의 역(歷)에서는 입추부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로 본다. 오늘부터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요즘은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지라 도저히 입추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가을이라니 조금은 성급한 절기라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절기라는 것이 어찌 그런 것까지 꼭꼭 맞는지 신기했던 터라 머지않아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이며, 귀뚜라미 소리가 곧 들릴 거라 믿는다.

입추 무렵은 비가 한창 이어가는 때인 지라, 맑은 날씨의 늦여름 햇살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겼다. 이때부터 처서 무렵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5일 이상 계속되면 비를 멎게 하는 기제례(祈晴祭)를 올렸다 한다. 가을이 계속되어 비가 오지 않을 때 지내는 기우제(祈雨祭)와는 반대 성격의 제사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고 자연

은 인간에게는 경외의 대상이다. 하여 사람의 힘으로 어려울 때 자연에게 기원을 드리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원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오늘이 마침 8월 8일이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시각이 생

일상생활 속의 기원

각난다. 올림픽 날 저녁 8시가 되어도 개막식이 열리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개막식을 시작했다 한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행사든 간에 정시에 시작하는데 말이다. 그야말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중국인들의 배짱 의식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중국인들은 8이라는 숫자에 열광한다. 8은 길함과 경축을 상징하며 돈과 부와 관련된 숫자로 믿기 때문이다.

중국 대도시의 간판을 보니 거의 모든 간판이 붉은색이다. 이유인즉 큰 사업이

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함인 지라 '붉어짐 일어나라'는 뜻에서 모든 간판이 붉은색이라는 것이다. 붉은색과 노랑으로 간판을 만들었는데 중국 극기도 빨강과 노랑으로 되어있다. '요양요행실'에서 보면 빨강과 노랑은 상생의 색이다. 빨강 노랑 그 자체가 좋은 색의 조화여서 최고의 기운이 서린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긍정적인 정서가 여러 면에서 그대로 합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런 확신에 찬 신념과 잡음없는 통일된 마음이 한데 모여 세계 경제의 선두를 달리는 강한 힘이 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학 학생회는 매년 그 학교 설립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를 하는데 그 날짜가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이다. 그 이유는 최고가 되기 위한 기원이라 한다. 숫자 1은 1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나라는 틀리지만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모양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원은 가히 세계적이다. 그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의 아침 관리가 중요하다. 한 가정의 가장은 아침에 좋은 얼굴로 일어나고 웃는 얼굴로 식구들을 대하면서 그날의 일을 기원해야 한다.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질 끊어도, 남편이 짜증을 내도 웃는 얼굴로 포용해주는 가정이라면 모두가 즐거울 것이 확실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아내의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자녀들은 화를 어디다 풀 것인가.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라도 발길질을 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원을 한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며 등등, 하루 종일 기원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까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맞지 않는다 그 투정하면서도 꼭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은 기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까지 그것은 계속된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무엇든 잘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고, 또 받고 있다. 세상 살아가 불만스러울 때 불만보다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원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현명하다. 더불어 내 직장, 우리나라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하면 좋겠다. 이왕이면 확신을 갖고, 믿고, 기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고구려대학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유태명

지난 7월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광주시 동구의 국제자매 결연도시인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월수구를 방문했다. 광주시 동구는 1997년 인구 104만 명에 이르는 월수구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생활체육·경제·교육·공무원 교환근무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월수구대표단과 예술단이 매년 총장축제의 거리퍼레이드와 공연에 참가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2007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찾은 월수구는 2010년 11월에 개최된 광주주 아시아간담회를 계기로 도시환경이 많이 정비되고 깨끗해져 있었다. 동구방문단은 월수구의 환대 속에 무연군 당서기의 안내를 받으며 문

북경 '금면왕조' 능가하는 광주 공연 만들자

화 및 복지시설을 비롯해 시내 곳곳을 둘러 보았다.

월수구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북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북경 시내에는 수많은 문화자원이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첨단 기술과 연계한 우수한 공연문화도 많다.

그 중에서도 북경 내 가장 큰 테마파크인 환락곡(歡樂谷)에서 '금면왕조(金面王朝)' 공연을 관람했다. 중국 최정상급 감독, 편극, 무대미술, 조명, 음악제작자, 의상제작사 및 200명에 이르는 우수한 배우들이 심혈을 기울인 종합예술 작품인 금면왕조(金面王朝)는 우리 일행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실제로 계곡물이 흐르는 무대 설치, 화려한 조명과 독특한 의상, 역사를 뛰어넘는 스토리 전개는 감탄사를 연발케 하였다. 북경이 문화유적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연예술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북경의 관광산업 현장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레 광주문화재단이 50년 후, 100년 후 우

리 후손들에게 어떤 문화유산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주시민은 문화전당이 광주를 먹여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또한 문화전당이 광주의 문화·예술·관광산업을 살리는 핵심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화전당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광주와 문화전당에 왜인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높고 특화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전당이 단지 한 번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 경유지로 전락한다면 광주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우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3개 권역 관광인프라'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다. 기본 구조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중심권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아시아 음악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불거리와 먹거리, 소풍공간을 만들고, 자산유원지권에는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단지와 음식점업 단지를 조성하며, 무등산과 인접한 의재로권에는 의재미술관, 예술인촌 등을 연계하여 남도문화의 불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동구의 구청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 문화전당 콘텐츠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해 고심 어린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전당의 공연장인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중국의 금면왕조를 능가하는 한국적이며 세계적 수준의 공연이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전당과 연계한 3개 권역 관광인프라 프로젝트에 정부와 광주시 차원의 투자만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본다. 문화전당이 여러 가지 사유로 준공이 늦어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개발에 광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인식하에, 최근 선보인 '자스민 광주'와 같은 콘텐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구구청장>

법조칼럼



김정호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변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를 접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으로서 선뜻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픈 마음의 정도가 일반사건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변호사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변호중 하나로 기억된다. 피고인과 피의 접견과 변론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범죄자의 삶과 사건 이후의 사법

어느 살인 피고인을 위한 변론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사건 발생 당시 공중파나 지역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터라 변호인으로서는 사건 기록보다 먼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필자는 1심 판결선고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 재판의 수임을 의뢰하고자 하였을 때 변형수법이 다소 잔혹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의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년의 형에서 변호인으로서 감형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 선임을 망설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열심히 변론에 임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자신이 살아 온 과정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허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피고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사죄의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록을 읽으면서 피고인과의 접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줬던 사과의 진정성과 살인에 이른 경위의 솔직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범죄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최초 내연관계를 안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관계를 청산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과거의 관계에 대하여 문체 삼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3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이 사건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관계에 비해 제1심의 징역 8년의 형은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1심보다 3년이 감

경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비록 필자가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인간이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빼앗을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살인의 동기와 경위, 살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따른 양형의 합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범죄인 살인사건의 경우 오히려 초범인 우발적인 격정범이 많다는 통계수치를 본 기억이 있다.

그만큼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인 감정통제를 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살인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필자는 역설적이게도 변호인 스스로 선입견에 이끌려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가장 망설인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오히려 저지른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반성하는 눈빛과 태도를 경험했다.

어느덧 피고인의 석방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다.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시설

확산되는 세계경제 불안 철저한 대비를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로 세계 금융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는 1만 2000선이 붕괴됐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폭락세를 보였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중국의 긴축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국내 코스피지수 역시 지난 사흘 만에 154포인트 떨어져 시가총액이 무려 86조 원 증발했다.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2008년의 세계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금융시장의 '날개 없는 추락'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경기전망에 대한 비판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마저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선다면 세계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형

인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물론 아직은 미국의 더블딥이 현실화될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대외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국 등이 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격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이 되풀이되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범법자에게도 국립묘지 안장 허용하디나

5·18단체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사망한 안희태씨가 유족들에 의해 6일 기습적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안장결정이 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안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보훈처의 졸속 심사에 있다. 국립묘지란 애국자와 국가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분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인물에 안장되는 곳인데 범법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의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보훈처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5·18 단체들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주지하다시피 안씨는 5·18항쟁 관련자들에 '폭도'로 매도하고 강제전압을 통해 수천명의 광주시민들을 살상한 군부의 지휘관에게 있었던 자로서 전두환씨 퇴임 때까지 경호실장을 지낸 5공(共) 군부독재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또 일제시대 비자금에 관여하면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의 졸속 심사에 있다. 국립묘지란 애국자와 국가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분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인물에 안장되는 곳인데 범법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의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보훈처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5·18 단체들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우리는 안씨의 안장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보훈처에 있음은 다시 한번 준엄하게 경고한다.

無等鼓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삼복염천(三伏炎天)이다. 짙을 찾아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따깝다. 때 맞춰 여름 휴가와 피서 행렬도 절정이다. 해수욕장과 강, 계곡은 초만원이다. 하지만 이맘때 피서객은 교통체증에, 바가지 상환에 고생같이 되기 십상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피서문화는 있었다. 산간 계곡의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채 더위를 쫓는 탁족(濯足)은 신분과 체면 때문에 맨몸을 드러낼 수 없는 선비들의 최고 피서법이었다. 온도에 민감하고 신경이 모여 있는 발을 물에 담그면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기(氣)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기 놀이다. 냇물이나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 메운탕을 끓여 먹고, 해염도 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다. 나주와 곡성, 순창 등에서는 이월치열의 모래짐도 성행했다. 유두날이나 삼복, 칠석, 백중, 처서 등에 폭포 밑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어내는 물맞이도 피서의 한 장면이었다.

피서(避暑)



다산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8가지 피서법을 소개한다. 깨끗한 대자리에 서 바둑두기, 소나무단(壇)에서 활쏘기, 빈 누각에서 투호놀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뛰기, 서쪽 언덕에서 연꽃 구경하기, 풍류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시 짓기, 달 밝은 밤

다산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8가지 피서법을 소개한다. 깨끗한 대자리에 서 바둑두기, 소나무단(壇)에서 활쏘기, 빈 누각에서 투호놀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뛰기, 서쪽 언덕에서 연꽃 구경하기, 풍류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시 짓기, 달 밝은 밤

발 씻기(濯濯濯足) 등이다. 선조들의 피서법은 이처럼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이었다. 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樂暑) 인격수양과 수신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절기는 벌써 입추를 지나 처서를 향해 달려간다. 막바지 더위를 피하지만 말고 즐겨보자.

발 씻기(濯濯濯足) 등이다. 선조들의 피서법은 이처럼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이었다. 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樂暑) 인격수양과 수신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절기는 벌써 입추를 지나 처서를 향해 달려간다. 막바지 더위를 피하지만 말고 즐겨보자.

전현(川鰲)은 서민들이 즐겼던 여름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담배꽂초 무단투기 과태료 증액 등 처벌 강화

지금 거리에 나가보자. 사방천지가 허연 담배꽂초투성이다.

출근길에 누군가 끄지도 않은 채 길바닥에 버린 담배꽂초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뿐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 꺾초를 아

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절대다수 시민과 거리질서, 아름다운 도시와 건강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질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몇 해전 내가 사는 집 근처 공터에 화재가 발생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대피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지만 화재 원인이 담배꽂초로 밝혀졌다. 자칫 주민

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담배꽂초의 필터는 땅속에 묻히나 해도 썩어서 사라지기까지 무려 30년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담배꽂초는 도로환경은 물론 미관에도 안 좋다. 특히 건조 기후로 인해 불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꺾초가 녹지대에 버려질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같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단속제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해서라도 담배꽂초의 무단 투기를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211호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